

보도분류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
보도일시	2020. 6. 21(월) 14: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과	신성장산업유치과
담당	과장 김연주, 담당 김희정 · 권혜미 바이오 · 헬스케어 PM(032-453-7362/7383)

##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바이오 생산 허브 육성 방안 논의”

문승욱 산업부장관 등 참석...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주요 기업 간담회 열려  
 송도바이오클러스터 제조시설 유치 등 큰 성과...K-바이오랩 허브 송도 유치 지원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 “송도는 무한한 잠재력 가진 곳...새로운 바이오시장 개척에 최선”

- 우리나라를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간담회가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송도 G타워에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주요 기업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임동주 인천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간담회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바이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산업 육성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의약품 개발자, 원부자재 공급자, 바이오기술벤처 등의 바이오 산업 관련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 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다.

-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성과 및 계획’ 발표에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증설투자, 독일 싸토리우스 등 첨단 바이오의약 분야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 유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등 핵심 인프라 유치, 뇌신경과학 등 생명과학 주요 분야 전문가 네트워킹 등의 성공적 추진 등에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K-바이오 랩허브’가 인천 송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또 이어진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입주기업 관계자들과의 토의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원부자재 공급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장관과 박시장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이 우리 기업의 꾸준한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천 송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도시로 송도의 바이오기업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연구개발 지원 확대, 핵심 원부자재 제조기술 역량 강화, 바이오 생산 전문 인력 공급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박시장은 “송도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설비와 세포 배양 배지 등 주요 원부자재 공급 면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고 줄기세포 치료제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차세대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며 “인천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분야 기술과 산업을 이끌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